

청소년이 읽을 만한 책

出協 선정 '이달의 청소년도서' 17종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권병일)가 선정하는 '이달의 청소년도서' 90년 4월~5월분으로 다음 17종의 도서가 뽑혔다. 재단법인 한국출판금고(이사장 정진숙)는 18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선정도서 1종당 300부씩 모두 5,100부를 구입, 전국 각지방의 문화원 118곳을 비롯, 청소년 선도기관·소년원·공공도서관 등 300곳에 배포했다. '이달의 청소년도서' 선정위원은 다음과 같다.

△문학예술=남미영(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신상철(아동문학가) △과학기술=현원복(과학기술연구단지 대변인) △종교철학=이은봉(덕성여대 교수) △역사=하현강(연세대 교수) △인문사회=송복(연세대 교수)

닭이나 달걀이나

로버트 사피로 지음 / 홍동선 옮김



생화학자인 저자가 생명의 기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망라해 소개하고 있는 책으로, 원제 「오리진」을 생명의 원초적 물질을 핵산과 단백질로 보는 두 학설의 비교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 역사가 표제로 바꾼 것.

종교에서 과학에 이르는 생물기원론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한편, 전문가로서의 날카로운 과학지식을 바탕으로 한 독특한 상상력이 돋보인다.

책세상 / A5신 / 366면 / 4000원

아버지

조세형 의 저



시인, 작가, 학자, 언론인, 정치인, 연예인, 만화가 등 각계각층의 인사 26명이 아버지를 주제로 쓴 글을 묶은 테마에세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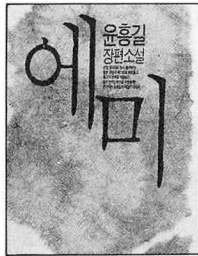
한국근대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버지세대가 젊어져야 했던 삶의 무게들,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바로세우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저마다 각별한 사랑의 사연들이 '아들들의 입'을 빌어 펼쳐져 있다.

문순태, 이현세, 이철, 송영, 한승원, 양성우, 정공채, 오성찬, 조동화, 신경림, 송건호 등의 아버지 이야기가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산하 / A5신 / 308면 / 4000원

에미

윤홍길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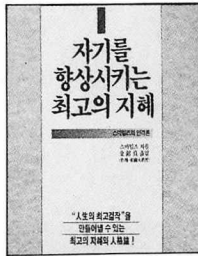


「장마」, 「아홉살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등으로 '한국문학작가상' '현대문학상'을 수상한 중견작가의 장편소설. 82년 한·일 양국에서 동시 출간, 일본 문단에서도 화제가 되었던 작품으로, 우리네 주변에 친숙한 모습으로 자리잡고 있는 전형적인 모성상을 그리고 있다. "우리의 수많은 어머니들이 험난한 세월 속에서 걸어온 고단한 삶의 역정을 날날이 되풀이하는 한편 제각각의 특징과 공통점을 가려뽑아 하나로 묶어"내는 작업을 통해 보편적인 한국적 '어머니 상'을 보여주고 있다.

청한 / A5신 / 360면 / 4000원

자기를 향상시키는 최고의 지혜

스마일즈 지음 / 金鎔貞 옮김



영국의 전기문학 작가이자 사회개혁가인 저자의 4대복음서 중 자존론, 근검론, 의무론에 이은 인격론편.

인간의 자기완성의 지름길을 자조정신의 중요성에 대한 자각과 그 실행임을 강조하고 있는 이 책은 특히 일상생활 속에서의 부단한 자기수양과 강한 인내심, 성실한 마음가짐을 '인간의 평생의 위대한 사업'으로 보고 있다. 자기성장의 6대지침과 향심의 6대원칙 등이 수록되어 있다.

原音社 / A5신 / 310면 / 3500원

名曲과 名人들

朴容九 지음



꾸준한 음악평론과 저술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저자가 "과학문명이 가져다준, 우주공간을 덮는 음악의 전파능력은 인격의 완성을 촉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음반과 명곡, 음악가에 관한 이야기와 자료들을 모은 책.

레코드에 얽힌 국내의 '史外史', 명곡의 탄생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에피소드와 당시의 사회상, 그리고 해금음악인들을 비롯해서 음악의 '名人'들에 대한 이야기가 풍부한 자료와 함께 실려있다.

世光音樂出版社 / A5신 / 360면 / 4000원

끝내 나를 버리시나이까

김옥진 지음



진신마비로 9년째 엎드려 지내면서 창작에 몰두하고 있는 저자의 신작시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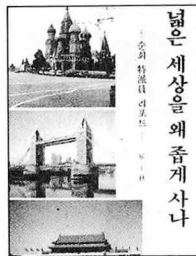
이미 동명의 제1시집과 일기집을 통해 불구와 병고를 극복하려는

참담한 생명의지를 보여줘 화제가 되었던 저자는 이번 시집에서 "위로받는 내가 위로해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써내려간 80여편의 시들을 선보이고 있다. 권말에 독자 격려편지와 화보들을 함께 수록.

사사연 / A5신 / 160면 / 2000원

넓은 세상을 왜 좁게 사나

崔卜林 지음



현재 뉴욕 한국일본논설위원인 저자가 지난 2년간 소련, 중국, 중남미, 유럽, 동남아 등지를 여행하면서 느낀 단상과 15년간의 미국생활 체험을 담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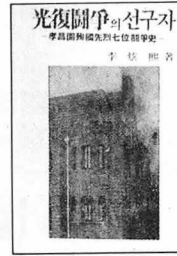
'리포트'형식의 에세이집.

해외여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각 나라의 현재 상황에 대한 독자적 분석과 함께 여러가지 풍물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교포들의 바람직한 정착생활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이 담겨있다. 권말에 기자로서 느꼈던 미국과 한국의 언론에 대한 인상을 수록.

유림문화사 / A5신 / 376면 / 4000원

光復鬪爭의 선구자

李炫熙 지음



현재 孝昌園에 봉안되어 있는 임정요인 이동녕, 김구, 조성환, 차이석과 당시 일선에서 무장투쟁을 벌였던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등 7인의 일생을 조명한

책. 3·1혁명을 전후로 중국 상해에서 민주공화정통의 혁명정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 이동시대를 거쳐 중경에 정착, 광복투쟁을 전개했던 이들의 일대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78년 발족된 '효창원순국선열합동추모제위원회'가 그동안 진행해왔던 숙원사업 중의 하나로, 위원회 건립경위가 소개되어 있다.

東方圖書 / A5신 / 436면 / 6000원

재미있는 이야기수학

권영한 지음



교단생활 30년째를 맞은 현직 교사인 저자가 중·고생을 비롯, 일반인들의 수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돋우기 위해 문제풀이 중심으로 수학적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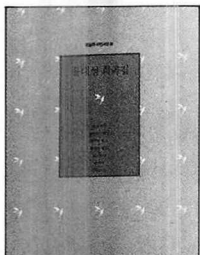
를 설명한 책.

수학의 발달과정, 뛰어난 수학자들의 일화와 발견법칙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중학생 이상의 수준에서 풀 수 있는 문제들과 함께 수학과 연관된 퀴즈, 퍼즐 등도 수록되어 있다. 수업시간의 실용적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도입, 전개, 정리단계를 밝고 있다.

전원문화사 / A5신 / 404면 / 4000원

윤대성 희곡집

윤대성 지음



67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데뷔, 서울예전 극작과 교수이자 MBC 드라마 작가로 활동하면서, 많은 창작희곡을 발표하고 있는 작가의 대표희곡모음.

사이코드라마를 극중극으로 포함하는 실험적 형식으로 화제를 모았던 '신화 1900'을 비롯해 불모상태였던 청소년 연극의 획기적 전환을 마련했던 '방황하는 별들' '꿈꾸는 별들', 노비들의 집단적 신분투쟁을 배경으로 70년대의 정치상황을 암유한 '노비문서', 현대인의 삶을 규정하는 부조리한 사회상을 고발한 '출세기',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 최근작 '死의 찬미'에 이르는 다양한 작품 세계를 엿볼 수 있다.

청하 / A5신 / 322면 / 4500원

이야기 러시아사

김경목 지음



러시아인의 정서와 역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반적 흐름을 이야기식으로 쉽게 풀어쓴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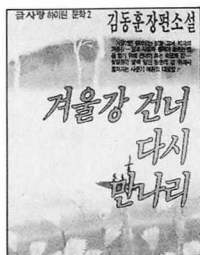
소련이 인류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라는 점에서 중요시되는 정치, 경제, 사회적 특성 외에도, 아시아와 유럽의 정서를 동시에 공유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 특성에 주목, 고대로부터 현재의 고르바초프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권력암투와 역사적 사건 등을 주요인물들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러시아의 기원이 되는 슬라브인들의 이동과 정착과정을 비롯, 러시아의 골격이 형성되기 시작한 키예프시대, 1905년 혁명을 거쳐 비참한 최후를 맞는 로마노프 왕조, 이후 혁명의 격변적 상황과 변화과정을 담고 있다.

청아 / A5신 / 430면 / 4500원

겨울강 건너 다시 만나리

김동훈 지음



81년 「아침이 오는風景」으로 「소설문학」 신인상에 당선, 「東海紀行」 「장마는 어떻게 오는가」 등을 발표하면서 꾸준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현직 교사인 작가의, 학창시절의 여러 고민과 갈등을 소재로 한 신작 장편소설.

서울 근교 평범한 가정의 딸인 여고 2년생 주인공이 대학입시를 앞두고 학교와 가정에서 민감하게 겪어내는 사춘기의 통과의례를 “겨울강을 건너 따뜻한 봄으로 가는 험거운 노정”으로 그려내고 있다.

글사랑 / A5신 / 258면 / 3000원

미지의 인간

알렉시스 카렐 지음 / 홍문화 옮김



혈관봉합과 심장이식에 대한 연구로 노벨의학상을 수상했던 저자가 현대과학의 인위적인 해부학적 관점을 지양하고 통합적인 전체성의 관점에서 인간존재의 신비를 파헤친 책.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특성을 해석하는 한편, 텔레파시나 강신술, 영매현상 등까지도 과학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인간이해의 총체성을 제공하고 있는데,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과학의 정립’ ‘신체의 구조와 성분’ ‘창조적 정신의 활동’ ‘인생의 밀도와 내적인 시간’ ‘지적 개인의 확립’ 등 전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림출판 / A5신 / 310면 / 3800원

파편

이혜원 외 지음



85년 세계 청소년의 해를 기념하여 문화방송이 제정한 'MBC 청소년문학상' 제5회 수상작품집.

총 7004편의 응모작 중 완벽한 문학적 완성도보다는 주제의 신선도와 문장력, 구성력에

비중을 두고 선정된 24편의 당선·가작 작품들이 부문별로 심사평, 당선소감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이혜원의 「파편」(중편), 강의선의 「마법사의 꿈」(단편), 안애정의 「성삼재에서」(시), 김옥의 「촛불 앞에서」(수필), 권윤경의 「내일이 머무는 창」(방송드라마) 등 올해의 당선작품들은 예년의 작품에서 볼 수 있었던 정치·사회 비판적인 내용보다는 주로 청소년이 느끼는 삶의 의미를 다루고 있는 점이 특징.

문학아카데미 / A5신 / 376면 / 4000원

꼭두각시놀이

徐淵昊 지음



연극평론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저자가 「山臺탈놀이」, 「黃海道탈놀이」 「野遊·五廣大놀이」에 이어 내놓은 「韓國의 탈놀이」 시리즈 네번째 책.

전통인형 및 인형놀이의 대명사가 된 꼭두각시놀이의 체계적인 전승 및 전과과정, 놀이 담당층의 사회적 위치, 등장인물과 재담의 구성, 놀이의 방식, 인형의 특징 등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기술을 시도하고 있다.

남사당 박용태 구술의 연희본과 주연산 구술·김동의 채록의 서산 박첨지놀이 연희본, 송석하·三田村鶯魚의 꼭두각시놀이 관계 자료와 함께 사진자료도 수록되어 있다.

열화당 / A5신 / 134면 / 4000원

위대한 학문과 짧은 생애

이병철 지음



평생동안 60만마리가 넘는 나비를 채집, 측정하여 생물분류학의 새로운 학설을 제창했고, 외국인들이 독점했던 한국산 나비의 분류체계를 완성한 '나비박사' 石宙明 평전.

과학자로서의 면모 뿐 아니라 제주도 방언을 연구한 국어학자, 에스페란토어 보급에 힘쓴 평화주의자, 산악운동을 통해 녹화사업을 벌인 사회운동가로서의 면모 등이 다양하게

소개되어 있다.

1908년 평양에서 태어나 6·25중에도 피난가지 않고 연구실을 지키다 비명에 간 석주명의 42년의 생애와 함께, 「조선산 집류개론」 「국학과 생물학」 등 그가 쓴 논문이 부록으로 실려있다.

아카데미서적 / A5신 / 298면 / 4000원

에덴의 龍, 신과 야수의 중간적 존재

C.세이전 지음 / 김명자 옮김



우리에게 「코스모스」로 널리 알려진, 미국의 우주과학 및 천문학 권위자인 저자의 78년 폴리처상 수상작품.

일반대중에게 과학적인 소재를 쉽고 흥미롭게 전달해주고 있는 저자는, 인간지능의 본성과 진화라는 생물학적 난제를 서구과학의 그간 축적된 연구성과들을 총동원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생명체가 형성된 조건, 발생, 적응, 멸종위기 등을 다루면서 우주의 실체를 인류의 출현과 연관시켜 기술하고 있으며 외계의 지적 생명체에 대한 논의도 언급하고 있다.

정음사 / A5신 / 272면 / 4000원

출판제널 정기구독안내

10개월20호분·값18000원
전화문의: 732-1431~3